

# 교회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대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장소: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방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일시(3차):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평일- 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 9시~11시/2시간(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자에게 줄링크 개별공지)
- ▶문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 010-5395-0939, 010-9175-2356)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 ▶대상: 위와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 ▶신청방법: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절 감사예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드려져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절 감사예배가 4월 9일(주일) 각 성전에서 종일 이어져 성도들은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며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하였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

게 될 사람'이란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진실하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이 믿음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땅에 있는 장막 집인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였다. 이날 예배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이 GNTC합창단과 GNTC 챔버오케스트라와의 아름다운 협연을 통해 하나님께 주옥같은 찬양을 드리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성가연합회가 주관하고 편곡을 한 김희성 교수의 지휘와 김유정 선생의 반주로 진행된 '2023년 부활절 솔리스트 앙상블 찬양'에서 12명의 솔리스트(성윤주 김수진 고화진 송나라 주소연 김선아 김성혜 김애연 정하나 박병준 정영환 김선웅)가 '예수 다시 사셨네'(혼성 4중창), '부활의 기쁨'(여성3중창), '기쁨 찬양 할렐루야'(혼성 4중창), '호산나'(남성3중창) 순서로 은혜와 감동의 무대를 꾸몄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화 감동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알고 믿으며 이를 전파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4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회령로 303 ☎ (031)486-3731



제182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인생길에 힘들고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며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김수희 -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의 심령을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신령한 위로와 새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성전 입구 화단에 예쁘게 빛을 발하며 반짝이던 성탄 트리, 여름방학을 기다렸다가 즐겁게 참여했던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구원동화처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던 성경공부 시간,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금요기도회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을 따라서 복음찬송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찬송하면서 배웠던 울동...

간증하는 지금, 저의 유년 시절 교회에서의 생활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안양에서 살 때에 동네의 수구역장님이 아버지를 먼저 전도하신 후 저희 가족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품이 매우 완고하신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뒤따라 어머니와 저희 4남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년기에 강한 아버지의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도 그러한 아버지의 성품에 변화가 없으셔서 즐겁고 화목한 날보다는 가족 간에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저희 4남매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예배를 잘 드리던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자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열 때문에 외모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는 출석하지 않고 대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소년기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갖춰야 할 신앙적인 소양과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일종의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다녔던 초등학교와 달리 제가 배정 받은 중학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먼 곳에 있어서 통학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등하교 때문에 자주 피곤을 느끼면서 교회의 예배에도 빠지는 날이 많아지더니 시험 기간에만 겨우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인문

계열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워낙 아버지의 고집이 세셔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원치 않았던 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낙심하여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꿈과 목표가 사라지고 까딱없이 몸이 피곤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가족은 광명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차츰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고 학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매일같이 몸이 고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석게도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무렵, 당뇨가 있으셨던 아버지가 고혈압과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 전 김사를 위한 채혈을 하는데, 그 채혈하는 과정에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그런 아버지가 제 눈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간병을 하면서 아버지께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습니다. 본래의 강한 성격에다 몸까지 약해지셔서 아버지는 전보다 더 식구들을 힘들게 하였습니

다. 그 전에 저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힘들게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식된 도리로 정성껏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와와의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마음의 벽을 끝까지 어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차아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께서 회사에 다니시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이 있어서 저도 제가 받는 월급을 저를 위해서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한 후에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 늘 잠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른 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피곤하다며 주말에도 예배에 빠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분별력을 잃어 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자주 신앙에 반하는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정기적으로 신앙투석을 받아야 하는 편찮으신 몸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스스로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병약한 아버지를 어머니가 휠체어에 모시고 일주일마다 세 번씩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그 때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의 간병을 받으시다가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지켜보시는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비롯하여 구역장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례예배를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해 전 추석명절이 막 지났을 때 목에서 인과선이 붓고 동시에 눈썹에 염증이 생겨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한 부분에 직접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는 다음 꼭 간증문을 쓰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도와주셔서 빠르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재작년에 저의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시던 곳에서 목사님을 통해 결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님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가 급히 가던 중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고 주일에는 어서 교회에 가라고 채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가친척들이 다들 고마워하였는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누구보다 더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 중에 더욱 힘을 내어 남편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루속히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저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평생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꼭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때의 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끄럽고 후회막급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기쁨을 잘 모르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편 119:103) 라고 한 이 말씀이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더 풍성한 저의 체력적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가사에 담겨진 의미를 음미하며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의 찬송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차아교정을 시작하게 되어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차아교정이 되어 더 밝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며 힘껏 봉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길에 힘들고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며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누가복음 13장 10절~30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30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52장(새찬송가 313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 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 회당에 나타나 가르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유대 당국의 적대와 감시가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곳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십 팔 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나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인이 당장에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회당 책임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지는 못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책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매우 분개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일할 날이 한 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 달라고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이야!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십팔 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가족의 당면한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

을 범하는데 할말며 사람이 사탄에게 눌러 있는 것을 놓여나도록 안식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확장, 발전과 향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4미터도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누룩은 가루를 반죽한 곳에 넣으면 전부 부풀게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천국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제국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처음에는 자기 믿음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 신자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분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여기던 신자가 세월이 가면 믿음이 자라서 그도 역시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직접 봉사를 해 보지 않으면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감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령한 지식이 더하여 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더하여 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질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후 4:16-18) 하였습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겨자씨의 성장력과 누룩의 확장력이 끊임없이 약동하여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감탄하며 환호할 것입니다.

###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욕구와 압박보다 더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되 건강하게 살며 건강하게 살되 부유하게 살며 부유하게 살되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으므로 이 땅에서의 생존뿐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죽을 저 건너편에서 지속되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죽을 저 건너편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실재하는 삶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실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성읍과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 구원에 관하여 훨씬 더 깊고 자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에 대하여 설명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마 7:13,14) 하였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주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민주적 회의 방법처럼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고독한 결단을 요구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고 몸을 굽혀야 합니다. 예루살렘성의 뒤편에는 ‘바늘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낙타에 실었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신과 낙타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척’하고 ‘체’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체하는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도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유한합니다. 다만 인류는 지식을 전하여 주고받음으로 날이 갈수록 그 정보의 분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공개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성을 쌓던 니므롯의 무리처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우리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어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근대과학 성립의 최고 공로자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 수학자 · 천문학자 아이작 뉴턴의 명언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은 마치 지식의 대양에서 조개껍데기에 담은 바닷물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존재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의 신리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방법으로 구원의 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0,21)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육기에는 많은 지적인 논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육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탐구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험물어린 실타래를 여기저기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얽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육기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육이 자신의 모든 이들을 내려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잃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육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욥 38:1-6).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 요청이 계속되니 비로소 육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1-3). 인생이 탐구하여서는 알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힘쓰라’라는 원어는 투기장이나 운동경기에서 전력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싸우라, 전력을 기울이라’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세속적 탐심과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세상의 꾀박을 이겨내야 하며, 마귀의 꾀방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쓰는 것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힘쓰는 자체가 은혜 체험에 속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는 원하여도 구원 얻기 위해 힘쓰지는 않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휴거 될 성도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대환한 중에 믿음을 가지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의 감동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면 믿음이 둔하여 집니다.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방주에 들어 간 후에도 7일 동안 방주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방주의 문은 하나님에 닫으셨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압수라 하나님께 이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라고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밀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시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계 3:7)라고 하였습니다.

26절, 27절에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것들에 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라는 말로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 주장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의식에 참여한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는 말로써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미션 스쿨에 다녔거나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들은바 말씀이 유익 되지 못합니다. ‘행악하는’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의로움이나 진실된 것에 반대되는 ‘불의’ ‘거짓’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 의식과 행위로 참여하고 지식을 쌓는 것은 불의와 거짓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28절,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하였습니다. 혈통과 신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나 혈통과 신분이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에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 복음을 배척하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찍이 교회에 다니며 복음을 들었어도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뒤늦게 복음을 들었으나 곧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혈통과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생시와 같은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까. 너무 아래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지옥 임구입니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 네가 가야 할 곳은 그보다 더 아래다.” 그 목사는 진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즉시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고 회개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기독교회의 여러 행사와 자신, 봉사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② 자신의 사회활동에 이용 가치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③ 정신적 수양과 훈련에 도움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라도 부지런히 다니다가 어느 날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고 실상은 신자가 아닌 교인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가라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마 13:24-30) 가라지는 곡식과 흡사하여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하기 어려우나 결실할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라지는 곡식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해로운 존재입니다.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백해무익합니다.

② 쪽정어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눅 3:16-17) 쪽정어는 껍질만 있고 속 알맹이가 들지 않은 열매입니다. 교회에 무해무익한 존재입니다.

③ 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시 1:4-6) 곡식의 갈겉질입니다. 교회에 더러 유익을 끼치나 결국은 분리되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나 아니냐 하는 것 역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되는 것은 어렵고도 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마음을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자격이나 신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노라라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 얻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체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